

(중산농정)

早期 모내기로 재해극복 쉬웠다

# 올 풍년 농사의 총결산

농수산부 미산과장 洪 仁 植

'81년부터 연 4년동안 풍작을 이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풍년을 이룩하려는 농민의 억척스러운 노력과 피땀어린 정성 그리고 온국민의 염원이 함께한 결실이라고 본다.

풍년이 있는 곳에는 흐뭇한 인정과 웃음이 있고 푸짐한 대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으로 온 국민은 총화단결되고 나라는 발전한다. 그래서 “올해는 풍년을 위하여”라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논밭으로 뛰어 다녔고 모내기 10일 앞당기기, 적기병충해방제, 적기벼베기, 한·수해극복 등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비지땀을 흘렸다. 이러한 결과 올해 벼농사는 대풍작을 이룬 것이다.

### ◇ 4개년 연속풍작

'81	'82	'83	'84
천석 35,160 (중수율%)	35,938 (2.2)	37,529 (6.7)	39,457 (12.2)

올 해대풍작을 이룩한 그 주요 시책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금년도 영농성과 분석

### 1. 사전 영농준비 철저

가. 겨울철 영농교육 실시

◇ '84 미곡생산량(총괄)

구 분		'84	'83	평 년	'83 대 비	
					증 감	비율(%)
식 부 면 적	미 곡	1,231 <sup>천 ha</sup>	1,229	1,228	2	0.2
	수 도	1,225	1,220	1,217	5	0.4
	통 일	367	419	470	△52	△12.3
	일 반	858	801	735	57	7.1
	육 도	6	9	11	△ 3	△30.0
10 a 당 량	수 도	463 <sup>kg</sup>	442	432	21	4.8
	통 일	502	483	461	19	3.9
	일 반	446	420	414	26	6.2
	육 도	172	185	195	△13	△7.0
	생산량(백미)	미 곡	39,457 <sup>천 석</sup>	37,529	36,209	1,928
수 도		39,384	37,414	36,060	1,970	5.3
통 일		12,794	14,049	13,072	△1,255	△8.9
일 반		26,590	23,365	20,188	3,225	13.8
육 도		73	115	147	△42	△34.6

'84년 1월 5일~3월 10일까지 2,557천명에게 각종 영농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일반벼 다수확 재배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나. 농토배양 사업 강화

우리나라의 지력 지수는 일본의 55% 수준인 점을 감안 농한기의 토지 생산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5,743천 필지에 농가별로 토양개량처방서를 발급하고 종합 농토배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데 주력했다.

계	식 작 물	량 복 반 영	합 능 반	생 개 선 반	활 반
2,557 <sup>천명</sup>	1,563	914		80	

과거 각종 재해발생분석결과 4~5년을 1주기로 재해가 발생한 점을 착안, 재해 사전대비책과 10a당 350kg 이하인 저위 생산지 171 천헥타에 대한 농토배양, 환경개선, 재배법 개선등에 중점을 두었고 벼 재배 품종을 농가 스스로가 선택재배하도록 하는 한편 지대별 적품종 심기와

계	객 토	벗 절 갈 기	깊 이 갈 기	개 제 시 용 비	량 사 료 녹 제 배
1,881 <sup>천 ha</sup>	69	726	720	307	59

## 2. 모내기 10일 앞당기기

모내기때의 한발과 벼 생육후기의 냉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수답 467천 헥타에 거울철 논물가두기와 한해 우심지구에 32천공의 관정을 영농기 이전에 개발하였고 모내기 10일 앞당기기 실천을 위해 못자리 설치는 지난해 보다 5일 빠른 5월 10일에 마쳤으며, 농촌일손돕기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357만 명이 동원되어 농촌의 부족 일손을 도운 결과 지난해 보다 10일이 빠른 6월 25일에 모내기를 마쳤다.

## 3. 전필지 모내기 완료

외형적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는 모내기 절대면적의 확보가 관건임으로 모내기 기피 농가를 대상으로 유형별 대책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발 상습지 30천 헥타와 특수 2모작답 39천 헥타에 적기 모내기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보다 5

'81	'82	'83	'84
천 ha			
1,212	1,176	1,220	1,225

천헥타, 계획면적 보다 13천헥타가 많은 1,224,675 헥타에 모내기를 마쳤다.

## 4. 병충해 방제 적극적 대처

'78년의 목도열병과 '83년의 벼멸구 피해를 거울삼아 병충해 전염원을 초기에 없애기 위해 논밭두렁 95천헥타에 불태우기를 실시하였고 벌써 55천톤을 부락 공동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69천 헥타의 전묘판에 규산질 비료 110천톤을 공급 시용하였을 뿐만아니라 모도열병 사전방제를 위해 입제농약 42천톤을 공급 시용했다.

또한 병충해 발생 상습지 2,667개소 13,477헥타를 대상으로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중점관리하는 한편 풀중대체 13천헥타, 농토배양 34천 헥타, 배수로 정비등 환경 개선 6천헥타를 실시하여 상습지 개선에 주력하였다. 전국 151개 예찰소와 3,000개소의 관찰포를 통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병행 5일마다 순회 예찰을 실시하였고, 사전 예방 위주의 병충해 방제를 유도하기 위해 예찰 정보(예보 10, 주의보 5, 경보 8회)를 발표 하였을 뿐 아니라 대단위 면적 94천헥타에 대해서는 항공방제

도 실시 하였으며, 전국 31천개의 공동방제단 및 용역 방제단을 활성화하여 부락단위 공동방제를 적극 추진했다. 또한 식물방역법 제17조에 의거 7.30~8.15사이 목도열병 일집무늬마름병, 벼멸구에 대한 긴급방제령을 발동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제방제를 실시한 결과 병충해 피해를 극소화했다.

또한 농약 확보 및 공급상황을 보면 벼멸구약의 경우 '83년 보다 106%가 많은 11,495톤을 확보하여 전국 4만개소의 마을단위에 현장 공급하여 농민이 불편없이 사서 쓰도록 조치하였고 돌발 병해충에 대비, 농약 원제 4천톤을 비축하여 부족한 농약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5. 균형 시비로 건전 생육

벼가 정상 생육을 하여 많은 벼알을 맺기 위하여는 적기에 알맞는 양의 영양분을 흡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벼전용 복합비료를 '83년보다 76천톤이 많은 741천톤을 공급하였고 특히 새로 개발된 냉해 전용 복합비료 10천톤을 냉해 우려지에 집중 공급하였으며 벼 이삭거름용 N-K 복합비료도 26천톤을 적기에

공급하였다.

또한 전국 읍면당 1개초석의 전층 시비 시범포와 도당 5헥타구모의 대단위 균형시비 시범포를 설치하여 균형 시비 효과를 농민에게 제도 실천토록 하였다.

◇비료확보 공급 상황 ('84.10.15 현재)

	확 보	공 급	비 율
계	1,112,180 <sup>톤</sup>	803,820	72%
21-17-17	754,060	584,877	78
17-21-17	271,882	155,917	57
15-20-15	10,000	26,569	66
18-0-18	29,950	25,655	6
기 타	46,288	30,802	67

6. 농업기계화로 일손 대처

농촌일손부족과 노임상승에 따라 노동력부족이 가장 심한 모내기과 벼베기 작업에 대처하기 위해 이앙 및 수확기를 증점 공급하여 벼농사에 기여 하였다.

—이앙기계화율: ('83) 16→ ('84) 20%
—수확기계화율: ('83) 19→ ('84) 23%
—경운, 정지기계화율: ('83) 83→ ('84) 90%

또한 마을 단위 공동이용 축진을

◇ 올 풍년 농사의 총결산 ◇

위한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 육성하여 농기계 활용도를 높였다.

	'83	'84	대 비
설 치	개소 2,627	3,685	140%
참여농가수	호 45,801	63,239	138

## 영 농 여 건

올해 기상이 예년에 보기 드문 좋은 상태라고들 하지만 7월과 9월초순의 집중호우와, 6월초순과 8월중순의 가뭄도 있었다.

### 1. 좋았던 조건

기온(5월—9월)은 9월 상중순을 제외하고 예년보다 0.2°C—1.7°C가 높게 경과하여 적산온도가 3,444°C로서 예년보다 122°C가 많고, 일조시간도 978시간으로서 예년보다 115시간이 많았으며, 강수량(1—9월)은 1,133mm로서 예년보다 19mm가 적었으나 영농 시기별로 때를 맞추어 비가 왔기때문에 한밭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 2. 나빴던 조건

## ◇ 집중호우

7월3일~13일과 8월 31~9월 4일의 두차례 집중호우로 인하여 각각 37천헥타, 121천헥타의 벼가 침수되거나 쓰러졌으며 유실매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속한 물빼기로 대부분 1일이내 물이 빠졌고 즉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줄였고 특히 8월 31일—9월 4일의 호우는 한강수계로 보면 200년만에 보는 집중호우였으나 모내기를 일찍 마치므로 해서 벼가 여우는 단계에서 물에 잠겼기 때문에 피해를 극소화 하였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478만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쓰러진벼 일으켜 세우기 18천헥타, 물빼기 98천헥타 병충해 방제 103천헥타의 실적을 올렸다.

## ◇ 가 물

6월초순 13개군 28개면 46개지구 793헥타의 논에 물이 말라 양수기 등 급수장비 314대, 송수호스 4천km를 동원하였고, 간이용수원 1,810개소를 개발하여 14천헥타의 논에 물을 급수하여 가뭄을 극복 하였고, 8월 중순에 841헥타의 본답이 말라 양수기 등 급수장비 43천대, 송수호스 500km를 동원하였고 관정 74천대를 가동하여 23천헥타에 물을 대어 가

음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도 하였다.

## '80년 이래 최대 풍작

금년도 식부면적 1,231천헥타에서 정곡으로 39,457천섬(568만톤)을 생산하여 생산곡료 3,800만석을 4년만에 달성한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

이는 목표대비 3.8%가 증가한 146만석, 작년대비 5.1% 증가한 193만섬이 증수되어 80년이래 최대 풍작을 이룬셈이다.

그 주요인은 첫째, 총식부면적이 확대되고, 모내기를 지난해 보다 10일 앞당겨 완료 하므로써 재해에 대

처 이를 슬기롭게 이겨냈다.

둘째, 과학 영농의 실천과 신속한 재해대책 추진으로 피해를 줄였다.

셋째, 병충해의 철저한 사전 방제와 순조로왔던 기상여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은 풍년농사의 경험을 살려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못된 점은 시정 보완하여 겨울철 영농교육, 종합농토배양, 논물가두기, 관정개발 등 용수원 확보에 주력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기름진 옥토에서 풍성한 쌀을 내년에도 생산할 수 있도록 알찬 '85년도 식량증산 계획을 수립 추진 하여야겠다. ①

## 농약 빈병을 회수합시다

증산을 위해 쓰고난 빈병은 한곳에 모았다가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농민은 사용한 농약빈병을 들판이나 산에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부로 버려진 농약 빈병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며 좁게는 우리의 농작업의 장애물이 될뿐 아니라 신체에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약빈병회수에 앞장섭시다.

**\*11월 15일은 「전국 일제 빈병수집의 날」입니다.\***